

[한라산 '환상숲길'을 가다(11)]제2코스-⑤남성대 제1대피소~5·16 도로 수악계곡

도순천·효돈천·신례천 등 환상숲길과 절묘한 조화

입력 : 2009. 06.18. 00:00:00



▲한라산 남쪽 '환상숲길'에는 도순천(강정천)을 비롯해 효돈천(효례천), 신례천 등 산남의 대표적인 하천들이 숲길을 관통하면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진=강경민기자

하천은 다양한 생물종의 피난처·비경 간직 옛 도수로·수악계곡 한라산 환상숲길 연결

한라산 허리를 둘러가는 '환상숲길'에는 다양한 생태계와 경관, 역사문화 공간이 넘나든다. 이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바로 하천이다. 한라산 남쪽 '환상숲길'에는 서귀포시 서부지역 도순천(강정천)을 비롯해 효돈천(효례천), 신례천 등 산남의 대표적 하천들이 숲길을 잇는다. 옛길은 보일 듯 말 듯 미로였다가 숲으로 뒤덮히고 하천을 만난다.

하천은 원래 숲길을 잇는데 장애였다. 하지만 하천은 임산자원 수송로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공간이었다. 숲길속 하천은 사람의 손길이 가고, 어느 곳에서는 자연적인 건널목 역할을 해줌으로써 숲길을 이어준다.

생태 전문가들은 제주의 하천을 가리켜 '종의 피난처'이자 경관적으로도 제주의 비경을 간직한 보고라고 평가한다. 그만큼 다양한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으며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 바로 제주의 하천이다. 제주의 하천은 이미 한라일보의 대하탐사보고서인 한라산대탐사'생명의 원류, 하천과 계곡'을 통해 그 진가가 조명된 바 있다.

▶도순천=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한 숲길탐사대가 처음 만난 하천은 도순천이다. 도순천은 한라산 명소인 영실 일대에서 발원해 하원, 도순을 지나 강정으로 이어진다. 하류에서는 강정천이라 불린다.

도순천 유역에는 하구 강정과 도순, 하원마을이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영실발원지도 바로 서귀포시 하원 산1번지에 위치해 있다.

도순천은 '물의 도시' 서귀포시를 웅변해주는 하천이다. 발원지인 영실분화구의 용출수는 지금도 등반객들의 목을 적셔주는 생명수다. 영실물은 하원마을까지 도수로로 연결된다. '환상숲길'에서 이 도수로로 만날 수 있다. 도순천의 수자원은 하구인 강정마을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강정(江汀)이라는 마을이름이 유래된 것도 물이 많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정마을의 풍부한 수자원은 제주 최대의 벼농사 경작을 가능케 했다.

▶효돈천=숲길탐사는 서귀포시 동흥동 제주시험림 경내에 들어서 효돈천을 낀 남성대 등반코스 제1대피소에 이른다. 효돈천은 서귀포를 대표하는 하천이며 돈내코 계곡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효돈천은 천연보호구역이다. 효돈천의 위용은 하천이 품고 있는 '산벌른내'라는 말에 그대로 드러난다. 어떤 물체를 양쪽으로 갈라놓거나 깨트린다는 뜻을 지닌 제주말 '벌른'의 의미를 새겨본다면 효돈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효돈천은 한라산 정상~산벌른내~돈내코~쇠소깍으로 이어진다. 도내 대부분의 하천이 건천(乾川)인데 비해 효돈천은 연중 용출하는 풍부한 수자원을 간직한 곳이다. 효돈천은 제주도 화산 연구를 비롯 담팔수 솔잎란 무주나무 등 희귀·특산식물 연구에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산벌른 계곡은 화산지대의 독특한 암극(岩隙)식생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희귀특산식물과 온갖 조류·곤충이 서식하는 이곳을 일컬어 '인위적·자연적 피해가 거의 없는 종(種)의 피난처'로 조명받고 있다.

▶신레천=신레천은 성널오름과 사라오름에서 발원해 보리악, 수악계곡을 거쳐 남원을 하례리와 신레리 경계를 가로지른다. 하천 전 구간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제주시내를 관통해 하구인 용연으로 이어지는 한천 상류에 탐라계곡이 있는 것처럼 신레천을 얘기할 때 수악계곡을 빼놓을 수 없다. 신레천은 수악계곡에 이르러 더욱 깊어지고 보리악에서는 오름을 갈라놓은 형태다. 보리악을 직접 관통해 수악계곡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협곡이다. 제주도내 하천 유로상에서 기생화산체인 오름을 직접 관통해 형성된 하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다. 강력한 유수의 힘에 의해 형성된 이 협곡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넓어지고 깊어진다. 여전히 하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환상숲길은 바로 이 수악계곡을 통과한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리포트]"숲길은 야생동물의 안식처"

야생조류 건강성에 큰 역할...생태 교육장 활용가치 높아



한라산 남쪽의 숲길은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고 먹이자원이나 은신처가 양호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에게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생태학적으로 상록수림이나 침엽수림보다는 둘 다 혼재하는 혼효림이 야생동물에게 좋은 서식공간이다. 숲을 구성하는 식생의 계층적 구조가 복잡할수록 다양한 야생동물이 이용할 수 있고, 번식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숲의 자원인 야생 조류는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에 해당되므로 식물의 종자 확산과 꽃가루 운반 등 숲 생태계의 건강성과 다양성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면에서 한라산 환상 숲길은 숲의 천이과정 속에서 야생동물의 생태학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특히 거린사슴에서 수악교까지 지나는 구간은 창고천, 중문천, 강정천, 연외천, 효돈천 등 제주의 대표적인 하천망이 발달해 있어서 야생동물에게 수자원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생태공간이다.

숲길에는 야생동물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게 마련이어서 아이들에게 숲과 야생동물 생태교육장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다. 배설물, 발자국, 깃털이나 털, 먹이 자원 등을 의외로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오소리와 노루의 배설물뿐만 아니라 고목에는 큰오색딱따구리의 먹이 활동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이따금 나무껍질을 떼어보면 그 속에는 애벌레, 까만 딱정벌레, 지네 그리고 어치가 숨겨놓은 도토리도 있다. 계곡 물가 주변에서는 물을 마시러 온 직박구리를 볼 수 있고, 언제 노루가 다녀갔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라산의 야생동물의 자원조사가 개방된 등반로에 의존한 경향이 있는데, 하천을 통과하는 환상 숲길은 야생동물의 조사연구에도 큰 도움을 준다. 한라산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분포범위, 번식밀도, 먹이자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출입이 적은 시간대나 최적의 조사지점을 선정해야 한다.

해발 700~800m 지점에 형성된 한라산의 숲길과 군데군데 발달한 계곡은 야생동물의 쉼터가 되고 있으며, 사람을 비롯한 천적의 접근이나 먹잇감을 구하기 위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삼나무와 편백나무로 구성된 시험림은 시범적으로 숲 관리를 진행중인데, 적절한 간벌을 통하여 다양한 야생 조류를 유인할 수 있다. 간벌이나 자연적으로 죽은 고사목도 여러 야생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숲자원이 된다. 그리고 숲길과 인접해 있는 일부 구간은 탁 트인 용암 계곡과 관목림으로 연결되는데, 숲외연부와 상공에서 먹이활동을 벌이는 황조롱이, 말뚝가리, 제비, 멧새, 때까치, 방울새와 같은 새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완병/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